

“스릴러란 자신도 몰랐던 본모습 알아가는 것”

첫 스릴러 소설 '운석사냥꾼' 출간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김용태 작가

진주서 발견된 운석 모티브...시골 배경
물질만능 속 딸 잃은 어머니의 분투
기발한 소재·극한 상황 몰입도 높여
“다양한 직업 거쳐...창작 결실 기뻐”



“하나의 우연적인 상황이 서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 우연적 상황이 자본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흥미를 끌어요. 또한 그 액수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크다면 폭발력은 배가되었지요.”

연일 후퇴지근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불쾌지수가 높다. 소설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특히나 스릴러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기발한 소재의 몰입감을 높이는 작품은 더할 나위 없는 ‘피서’가 된다.

광주일보 신춘문예(2012년) 출신 김용태 작가(36·사진)가 펴낸 ‘운석사냥꾼’(고즈닉이엔티)은 절묘한 전개와 서스펜스가 어우러진 미스터리 스릴러다.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 작가로도 선정된 바 있는 김 작가의 첫 번째 장편 소설로 2016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전스토리 창작과정에 선정돼 집필로 이어졌다.

김 작가는 “과거 진주에 운석이 떨어졌을 때의 일이 소설의 모티브가 됐다”며 “당시에는 어떻게 서사화로 진행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연스레 이야기로 연계됐다”고 밝혔다.

소설은 작은 시골마을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사건을 기화로 전개된다. 16년 만에 귀향한 희령은 운석이 떨어진 다음날 딸 별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핸드폰 위치추적기 기능이 별이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저수지. 희령은 재혼한 남편 면수, 녹장 대저를 하는 경찰도 믿



을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은 별이의 실종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떨어진 운석의 가치가 얼마인가에만 신경을 쏟고 있어요.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별이의 실종이 운석을 보러 몰려드는 관광객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합니다.”

작품은 비밀이 많은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지만 서사적 공간인 ‘여서군 구와면’은 상당히 개방돼 있다. 소설이 내재하는 ‘폐쇄된 공동체’와는 적잖은 간극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폐쇄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보다 인물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며 “일반적으로 시골은 정이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닌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

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을 적지 않게 보며 자랐다. 시골의 마을은 공동체에 따라 저마다 성향이 달라 하나로 규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설은 스릴러답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처음 제시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개된다. 아마도 인물이 지닌 양면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설 속 인물의 전형성을 탈피한 지 오래됐다”는 김 작가는 “스릴러란 사건 해결과정보다 자신도 몰랐던 본래의 모습 그리고 타인의 모습을 점차 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작가는 흔히 말하는 순문학을 공부했다.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신춘문예에 당선된 뒤, 창작의 길로 들어섰다. 이번 작품을 쓰면서 장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궁금했다.

“순문학을 배울 때는 단편 위주로, 그것도 인물 내면의 형상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 작품은 장편인데다 스릴러라서 인물에 역동성을 가미해야 했어요. 순간순간 긴장의 고리를 연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랐죠.”

김 작가는 학교에서 배운 부분을 순문학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창작의 기초 혹은 태도를 배웠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문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써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시기”라며 “장르적 구분은 독자의 선택을 돕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을 쓰면서 김 작가는 미국의 스포츠 스미스와 영국의 톰 스미스의 영향을 받았다. 인물을 극한의 상황에까지 밀고 가는 방식에 있어 두 작가는 발군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첫 소설집으로 스릴러물을 펴내며 본격적인 창작의 길로 들어선 김 작가. 그동안 대필, 학습지 방문교사, 사무실 행정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그럼에도 창작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등단해서 지금까지는 생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설을 쓴 지 10년이 넘었고 등단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첫 창작집을 펴내게 됐거든요. 컴퓨터 파일에 저장돼 있는 소설들에게 미안했어요... 마지막으로, 자식과도 같은 첫 작품인데 독자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전현의 문화카레

뉴욕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 BBC 필하모니...

클래식 문외한일지라도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의 ‘인연’이다. 롯데 높기로 소 대전을 찾은 것이다. 그중에서 지난 2005년 2월 한국 최초의 모던발레의 지존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을 단독 유치한 일화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03년 개관한 대전예술의전당(전당)은 자타가 공인하는 중

있도록 설계됐다. 또 객석 간 거리가 36m로 보통 공연장 50m 보다 짧아 배우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다.

특히 클래식 전용홀인 아람음악당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최적의 자연음을 전달하는 슈박스(신발 상자) 구조로 설계돼 은은하고 균일한 음향을 자랑한다. 지난 2009년 내한공연을 가진 세계적인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매우 훌륭한 자연음향을 내는 음악당(such a great acoustic hall)”이라고 극찬할 정도다.

지역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광주

26년 만의 ‘변신’

부권의 ‘남버 윈’ 공연장이다. 둔산대공원 내에 자리 잡은 전당(연면적 4만774㎡)은 아트홀(1546석), 앙상블홀(651석), 칸벤션홀, 대연습실(9개)과 분장실, 어린이 놀이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극장인 아트홀은 120명의 단원을 수용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피트와 좌석간 거리가 1m, 최대 5.7m까지 기울어지는 경사무대 시스템이 특징이다.

하지만 전당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건 시즌별 페스티벌과 교육프로그램이다. 매년 4월 지역예술단체들의 발표무대인 스프링 축제를 시작으로 시민들을 위한 여름무대 야외공연(7·8월), 수준높은 클래식 공연들을 한자리에 모은 ‘그랜드 페스티벌’(9·10월)등은 하이라이트다.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아람누리라는 ‘꿈의 무대’로 통한다.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뛰어난 음향과 무대시설을 갖췄기 때문이다. 오페라 전용극장인 아람극장은 114개의 스피커를 극장 곳곳에 배치해 객석 어디에서나 뛰어난 음향을 들을 수

문화회관이 설립 26년 만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지난 1991년 개관한 이래 시설이 노후화돼 제대로 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총 사업비 249억 원을 들여 2019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첫해에는 50억 원을 들여 대극장 내부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2020년에는 무대장비를 교체한다.

사실 광주문화회관의 리모델링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90년 대 이후 들어선 국내 유명 아트센터들이 클래식, 오페라, 발레, 연극 등 장르에 맞는 전용홀로 설계된 데 반해 광주문화회관은 다목적 공연장이기 때문이다. ‘다목적’이라는 말은 그 어떤 장르도 100%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다. 특히 시설이 낙후돼 있다 보니 평일 낮시간 대 프로그램은커녕 관객들을 위한 변변한 편의시설 하나 없다. 모쪼록 이번 리모델링이 문화광주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장성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장성 필암서원이 2018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

장성군 황룡면에 소재한 필암서원(사적 제242호)은 1590년 하서 김인후(金麟厚)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남도의 대표 서원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4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2018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한국의 서원’을 선정했다.

‘한국의 서원’은 장성 필암서원을 비롯해, 영주 소수서원(경북 영주), 함양 남계서원(경남 함양), 경주 옥산서원(경북 경주), 안동 도산서원(경북 안동), 달성 도동서원(대구 달성구),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정읍 무성서원(전북 정읍), 논산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한국 성리학 발전과

서원 건축유형을 대표하고 있는 9개의 서원이다.

‘한국의 서원’은 2011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었고,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었으나, 심사결과가 좋지 않게 예측되면서 2016년 4월 신청을 자진철회한 바 있다. 이후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자문실사를 받아, 신청 내용에 대한 보안을 계속해왔다.

‘한국의 서원’은 내년 1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반 동안의 심사를 거친 다음 2019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성 필암서원

함인선 ‘EU개인정보보호법’ 2017세종도서 선정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함인선 교수의 저서 ‘EU개인정보보호법’(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7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선정됐다.

이 연구서는 EU개인정보보호법의 법원(法源)과 입법목적, 적용범위를 다뤄 그 기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EU개인정보보호법이 성립되



기 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뤄졌던 국제적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EU개인정보보호법을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것과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래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읍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한우가격의 2/3

외구 갈비살 20,000원
외구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외구전문점
-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